

단군학연구 제39호

고대의 요수와 요동

장우순·문치웅

단군학회

2018.12

고대의 요수와 요동

장우순*·문치웅**

I. 머리말	IV. 요동과 장성의 동단
II. 연구의 방법	V. 맺음말
III. 요수의 위치	

【국문초록】

본고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역적 기준으로 이해되는 고대의 요수, 요동, 낙랑 등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고문헌, 지도, 고고학적 성과들을 분석한 결과 요수는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역현을 감싸고 흐르는 거마하였다. 백석산의 산자락인 역현 서쪽, 거마하의 지류가 흐르는 곳에서 遼水村이라는 지명을 발견하였는데, 『산해경』 등의 기록과 중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遼水의 본래 이름은 潦水로, 潦水村의 존재는 원래 이곳이 요수가 흐르는 곳이었음을 의미한다.

요택은 요수인 거마하와 자하, 당하, 역수 등 10여개의 하천이 합류하여 조성된 거대한 습지로 하북성 보정시 안신현 일대였다. 요택은 과거 황하와 이들 하천이 합류하던 곳에서 유속이 느려져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었으며,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 홍익인간재단 책임연구원

** 홍익인간재단 연구원장

보정시 서수구 수성진에는 연장성과 수성의 유적이 있어 이곳이 낙랑군 수성현이었음을 확인하였고, 고대의 원전문헌들과 당대의 문헌인 『통전』을 분석하여 장성의 동단이자 요동의 치소인 양평을 역현 일대로, 요동군을 보정시 일대로 판단하였다. 또한 고대의 원전문헌 뿐 아니라, 당, 송, 명·청대의 지리관련 문헌들에서도 요동, 양평, 낙랑, 창려 등의 지명들이 하북성 중부에서 산동성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입증하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다.

※ 주제어 : 요수, 요택, 요동, 요수촌(遼水村), 낙랑.

I. 머리말

遼水¹⁾는 碣石山과 함께 東夷族인 고조선 계열의 국가들²⁾과 華夏族³⁾인 중원⁴⁾ 국가들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던 하천으

1) 中國水利百科全書第二版編輯委員會編輯, 『中國水利百科全書』, ‘遼河’, 北京, 中國水利水電出版社, 2006, “遼河, 中國東北地區南部河流. 漢代以前稱句驪河, 漢代稱大遼河, 五代以後稱遼河(요하는 중국동부지구 남부의 하천이다. 漢代 이전에는 句麗河로 불렸으며, 五代 이후에 遼河로 불렸다). 遼水는 戰國時期的 『山海經』, 漢代的 『鹽鐵論』, 『淮南子』, 北魏의 『水耕注』, 唐代的 『通典』, 宋代的 『舊唐書』 등 상고대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헌에서 遼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 하천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句驪河, 大遼河, 遼河 등으로 불렸던 遼河는 결코 遼水가 될 수 없다.

2) 한국의 연구자들은 고조선·부여·고구려 등 한국 관련 고대국가들과 중국의 東夷를 전혀 다른 종족이나 국가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중국 최초의 의미 있는 고대국가인 殷의 선조 契이 동북의 東夷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傅斯年 저/정재서 역, 『夷夏東西說』,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 一冊, 人民出版社, 1962). 특히, 傅斯年은 난생설화와 강역을 분석하여 중국의 東夷와 고구려, 부여 등이 계통상 같은 뿌리임을 입증하였다.

3) 티베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羌族, 氐族 등의 유목민이 선조이며, 현대 중국민족의 기원으로 주장된다. 하지만 華夏族 성립의 전제인 夏가